

“겨울을 부탁한다”… 태극전사 출사표

“올해 세계 20위·최종전 목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미디어데이서 선전 다짐
종합 15위·금 1~2개 목표
“집중·노력해서 메달 도전”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의 어두운 성적 전망에 관해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주요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은 5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대한체육회가 밝힌 선수단 목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자컬링 국가대표 ‘팀 김’의 리더 김선영(강릉시청)도 “대한체육회가 예상 금메달 개수를 적게 잡



이기를 대한체육회장(왼쪽 다섯 번째)과 선수단 및 관계자가 5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았다고 우리가 메달을 못 따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부담감이 줄었다. 실망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메달획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최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목표를 “금메달 1~2개”라고 발표했다.

호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각종 내용과 주력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

력이 급감한데다, 스켈레톤 등 평창 올림픽 금메달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체육회는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해당 목표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한국은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한 1988년 캘거리 대회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 선수들은 어두운 전망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말까지 출전권을 추가로 확보해 6개 종목 약 60명이 올림픽 무대를 밟을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올림픽은 2월 4일 개막한다.



제주Utd가 영입한 최재혁·김동국·한중무·임준섭(왼쪽부터) 사진=제주유나이티드 제공

제주Utd, 유스 출신 등 신인 4명 영입

임준섭·한중무·김동국·최재혁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유스 출신’ 등 신인 4명을 영입했다. 제주는 2022시즌 전력 강화 및 U-22 출전 규정에 따른 선수단 운용을 위해 제주 U-18 유소년팀 출신 임준섭과 한중무를 우선지명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는 골키퍼인 임준섭은 195cm, 84kg의 피지컬로 공중볼 장악과 후방 빌드업 능력을 갖췄고, 한

중무는 많은 활동량을 앞세워 중원을 장악하는 능력 등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김동국은 측면 플레이가 강점으로 왼쪽 윙포워드와 윙백이지만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으며, 윙포워드인 최재혁은 스피드를 이용한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라고 전했다. 남기일 감독은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좋은 재능들”이라면서 “체계적 훈련을 통해 성장한다면 제주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빅리거 김하성… 불박이 유격수 될까

MLB NL 지명 타자 도입 예상
아메리칸리그와 더불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양대 리그를 형성하는 내셔널리그가 올해 지명 타자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CBS 스포츠는 MLB 구단과 선수노조가 새로 합의하는 노사협약에 보편적인 지명 타자 제도 시행이 들어갈 것이라고 5일(한국 시간) 전했다.

이는 아메리칸리그뿐만 아니라 내셔널리그에서도 투수 대신 지명 타자가 타석에서는 것을 의미한다. 아메리칸리그는 타격에만 전념하는 지명 타자를 1973년 도입했다. 야구의 본질을 고수하는 내셔널리그는 지명 타자를 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투수가 타격도 한다. 인터리그와 월드시리즈에서 양대 리그 팀이 격돌할 때 아메리칸 리그 홈구장에서 경기가 벌어지면, 두 팀은 지명 타자를 활용한다. 내셔널리그 홈구장이면 투수를 타석

에 내보낸다. 내셔널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주로 뛴 ‘코리안 특급’ 박찬호(48)는 빅리거에서 통산 홈런 3개를 쳤다. 남다른 타격 감각을 뽐내 ‘베이브 루스’란 애칭을 얻기도 한 류현진(35·토론토블루제이스)도 다저스 시절 홈런 1개를 날렸다. 지명 타자 제도 도입 후 리그 색깔은 확연히 갈렸다. 라인업을 전원 전문 타자로 꾸린 아메리칸리그는 공격력이 돋보이는 야구를 펼쳤다. 투수가 타석에 등장하는 내셔널리그는 아메리칸 리그보다는 아기자기한 맛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주로 들었다. CBS 스포츠는 내셔널리그가 지명 타자 제도를 채택하면 샌디에이고의 한국인 내야수 김하성(27)의 출전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샌디에이고가 우익수 월 마이어스를 지명 타자로 기용하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를 유격수에서 우익수로 돌리고 김하성이 유격수를 꿰찰 수 있다는 전망이다.

PGA투어 임성재 다짐 밝혀 아시안게임 금메달도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임성재(24·사진)가 2022년 목표를 세계 랭킹 20위 내 진입과 시즌 최종전 진출이라고 밝혔다.

임성재는 5일 한국 기자들과 진행한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 “제가 현재 세계 랭킹 26위인데 조금씩 올려서 20위 안에 유지하면 좋겠고, 제가 퍼트가 약하기 때문에 3~4m 정도 퍼트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새해 각오를 전했다. 1998년생 호랑이띠인 임성재는 지난해 2월 16위가 자신의 역대 최고 순위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출전, 공동 22위에 오른 그는 “한국 대표로 나간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경력을 남는 기록”이라며 “이런 경력이 쌓일수록 자신감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돌아봤다. 특히 그동안 프로 선수들의 출전이 금지됐던 아시안게임도 올해 한겨울 대회부터 프로 선수들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임성재는 “기회가 되면 나갈 생각”이라며 “아시안게임에는 단체전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서 잘해보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병역 미필인 임성재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2020년 3월 혼다 클래식,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서 우승, 투어 통산 2승을 기록 중인 그는 “3승도 하고 싶지만 욕심을 내기보다 차분히 기다리며 기회를 보겠다”며 “우승 기회가 왔을 때는 다른 대회보다 더 집중해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3년 연속 우승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시즌 초반 좋아하는 대회가 많아 경기에 계속 출전할 것 같다”는 임성재는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도 잘해서 세계 랭킹을 올리고, 마지막 목표는 시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라고 호랑이의 해인 2022년 선전을 다짐했다.

제주 오는 류현진… 어깨 예열 준비

장민재·이태양과 미니 캠프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이 2년 연속 제주도에서 ‘미니 캠프’를 차린다. 류현진 측 관계자는 5일 “류현진이 한화 이글스 시절 함께 뛴 후배들과 6일부터 서귀포시 강창학야구장 등에서 20일까지 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류현진의 토론토 전담 트레이너로 일한 장세홍 트레이너, 장민재, 김기탁(이상 한화), 이태양(SSG 랜더스)이 류현진과 동행한다. 류현진은 지난해 10월 9일 귀국

해 짧은 휴식을 취한 뒤, 김광수 전 한화 투수가 운영하는 54K 스포츠에서 훈련했다. 실내에서 가볍게 투구 훈련을 시작한 류현진은 ‘퐁토스’ 등을 위해 제주도로 향한다. 류현진은 12월까지의 웨이트 트레이닝 등에 집중하고, 1월부터 본격적인 투구 훈련을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에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짧은 전지 훈련을 했지만, 지난해부터는 제주도를 훈련 장소로 택했다. 순조롭게 ‘서울 실내 훈련’을 마친 류현진이 제주도에서 어깨를 예열한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국경 8:25 신년기획 아침미팅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신년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생로병사의 비밀 11:50 숨터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강국경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태종 이방원(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뿌라기 식사교실(재) 11:45 똑딱꾸조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좋은 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향이 보인다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뽀롱뽀롱 뽀로로 9:40 우리집 유치원 12:10 EBS 부모 14:10 명희 15:05 위대한수업, 그레이터마인즈 16:15 한글용사 아이야 16: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그리스 로마 신화 18:00 생방송 뽀로로 해설단 21:50 빅데이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네트워킹 특선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KBS 뉴스 12 14:30 주디세이 14:45 엉뚱발랄 쏜순이와 친구들 시즌7 15:00 신비이퍼트 고스트볼Z 어둠의 퇴마사 15:30 방과 후 초능력 16:00 사사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00 태종 이방원(재) 13:00 박원순의 같이살시다(재) 14:00 춘스런게 인사이드 아일랜드(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인일(재) 15:30 TV 유치원 16:00 누가누가 잘하나 17:0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17:15 티티 체리 17:30 농민 애는 따라잡기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웃소매 붉은 굴동(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롱뽀롱 좋아좋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12:0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3교시 사투루스(재)	제주 CBS FM 93.3MHz 90.3MHz 7:00 김대기의 아침뉴스 9:00 그대까지 김대기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천왕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대거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판승 21:35 라디오강단 22:05 김영은 기스텔 위
KCTV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신년기획 한국인의 밤상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2022 신년특집 4부작 다음이 온다 1편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패왕기 20:30 신년기획 UHD 환경스페셜 21:30 학교 2021 22:40 한 번쯤 멈출 수밖에 23: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9:05 생방송 연금록편 720+ 19:10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특집 100분토론 22:30 명쾌한 주 23:30 제주 여성 히스토리 23:4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8:20 아미드 사투루스 18:50 포커스 인 제주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신년특집 공생의 법칙 22: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7:00 KCTV 뉴스 8:00 방송관련초경연대회 수상자 9:30 제주형 문화예술전문인력 10:20 KCTV 건강특집 11:30 제주 영 아티스트 음악캠프 13:10 세프의 필도발상 14:30 다들모넷 토크 15:20 제주형 문화예술전문인력 17:00 KCTV 뉴스 17:30 제주 영 아티스트 음악캠프 19:00 KCTV 뉴스 20:50 KCTV 건강특집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MBC ☎ 064-740-2432 JIBS ☎ 064-740-7800 KCTV ☎ 064-741-7723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6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부탁이 와도 내 거건이 약해 부탁을 못 들어주어 마음이 아쉽다. 48년 마음고생이 심하니 번거로운 일을 만들거나 두가지 일을 하면 몸살만 난다. 60년 수습할 일이 생기거나 근심수가 오니 행동 조심해야. 72년 번화를 추구하거나 자녀문제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다. 84년 두가지 일로 고민이 많다.

37년 문서운이 있고 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 49년 자녀로 인한 경사도 있지만 자녀로 인해 걱정하는 경우도 생긴다. 61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추진해도 무방하다. 73년 안전사고 조심, 무단차 철저, 외출시 현금조심, 불조심. 85년 귀가가 늦으면 불화가 찾아오니 일찍 집으로 향할 것.

38년 외출시 낙상으로 인한 관절과 타박상 조심. 50년 혼자서는 해결이 안되니 가까이 있는 사람과 논의하라. 62년 몸이 분주하고 바쁘다. 자식이나 남편관리 철저. 74년 이성이나 애정이 오거나 행동에 신중함을 가질 것. 86년 주위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화식에 나를 부른다.

39년 내 주변에 안타까움이 많은 소식을 듣게 된다. 51년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일은 회망이 있다. 63년 이익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다. 외출시 자는 집에 둘 것. 75년 문서, 매매나 이사는 원만하나 가정에서 불화가 생긴다. 87년 새로운 이성이나 교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40년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거나 놀랄 일이 생긴다. 52년 같은 일을 반복하여 하는 업종은 좋은 대화법이 필요하다. 64년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다 망신수가 있으니 간섭하고 싶어도 꼭 참고 자녀에 신경써라. 76년 활동이 강하고 모임이 생긴다. 부부애정 주의. 88년 생각에 머물지 말고 실천이 최우선이다.

41년 집안에 할 일이 많고 손발 곳도 많은 날. 53년 진행 업무에 하자가 발생되거나 지체되니 각별히 주의. 65년 부부간 불화가 찾아오고 이성이 번기니 가정에서 논쟁은 불리. 77년 직장이나 업종의 변화가 온다. 쉽게 결정하지 마라. 89년 너무 신중해 기회를 잃기도 하니 자신감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42년 몸과 마음이 허전하다. 친구나 취미동호회가 필요. 54년 시비나 구설이 오니 다투지 않게 상책. 66년 직장에 관한 소식을 접하거나 이성이 다가온다. 78년 자기본위적 독단은 일이 어렵게 한다. 대화와 화합으로 추진하라. 90년 예전과 같지 않다. 도움 필요시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 해소.

43년 업무과중에 심하면 과로사의 위험도 우려. 휴식과 여유가 필요한 때. 55년 하는 일을 변형하면 불리하니 현재 상태를 유지해 가는게 바람직. 67년 이동 변화가 필요하며 집안에 안부전환. 근심수가 오기도 한다. 79년 자신을 가지고 맡겨진 일을 소화하라. 91년 건강증진 오거나 한 말을 토해게 된다.

44년 이동 변동건이 오거나 문서와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 56년 가게 오픈이나 모임에 가게 되니 술은 가능한 자제. 68년 생각이 많거나 안정부절 할 수 있으니 침착한 생각이 결단을 빠르게 한다. 80년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타인의 일에 간섭은 금물. 92년 친구나 동료가 필요하고 정보보다 밖으로 나가고 싶은 날.

45년 농·수산업 분주. 명예가 있거나 재물 이득. 57년 일에 추진이 빨라지고 능률이 오른다. 최선을 다해 기회를 활용하라. 69년 동업 제의시 정중한 거절도 필요. 자격준비하여 독립사업 걸. 81년 이성으로 갈등한다. 독보다 실이 많으니 약속은 보류. 93년 협조할 일이 생기거나 주위에 도움을 주면 기쁨 가득.

46년 부부간에 정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게 되니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 58년 애정분제로 외부에서 불화가 생기니 구설을 만들지 말 것. 70년 오늘날도 내일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82년 청전을 받거나 고가에 반영되니 자신감을 가질 것. 94년 외출이나 운동 등 야외로 나갈 일이 생긴다.

47년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지혜가 필요하니 간섭하지 마라. 59년 시간이 나를 기다려 주지 않으니 주변에서 해법을 찾아봐라. 71년 직장인에게 실직 또는 재취업에 대한 일이 발생하니 신경을 써라. 83년 이성이 생기고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한다. 95년 전문성을 가진 업은 자신을 갖고 뛰어나라.